

# 국어과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식 비교\*

김정자\*\*

## 〈차 례〉

1. 서론
2.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
3.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
4.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 표현 교육에 대한 인식
5. 연구의 결과의 논의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미디어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환경으로 간주하는 미디어 생태론<sup>1)</sup>자들에게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도입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2000년 선정 중점연구소 2단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05-B20014)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 미디어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환경(invisible environment)에 주목한 연구 경향들을 미디어 생태학(media ecology)이라고 부른다. 미

를 유발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디어 생태론자들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의 핵심적 결과로서 인간에 대한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간의 경험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영향력이 그것이다. 미디어를 중요한 인간 환경으로 간주하는 미디어 생태론자들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변화의 특징과 속도, 특히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관련한 변화의 특징과 속도는 과거에 경험되었던 어떤 문화와도 완전히 구별됨에 주목한다(김성벽, 2001: 91-92).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의 의사소통, 문화,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연필이나 펜으로 글을 쓰는 대신 컴퓨터로 글을 쓰고 나서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다.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기도 한다.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각종 정보를 조회하고 신문이나 영화도 본다.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저널을 보기도 하고 전자 책을 사서 읽기도 한다. 또한 기존의 의사소통과는 다른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자우편, 메신저, 게시판, 홈페이지, 블로그 등은 인터넷 상에서의 소통 방식들로서,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게시판 등은 어느덧 일반화되어 있다.<sup>2)</sup>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그 매체가 의사소통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 매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매체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디어 생태학(media ecology)이란 용어는 1968년 11월 Neil Postman이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전국영어교사협의회"에서 영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기조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미디어 생태학에 대해서는 김성벽(2001) 참고.

- 2)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 조사」(2003.1)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 중 85.2%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e-mail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이내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인터넷 이용자는 3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학생의 이용률은 71.3%, 65.4%, 70.0%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어교육이 학습자들이 의사 소통을 잘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새로운 매체에 의한 소통 방식 또한 국어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매체인 컴퓨터와 인터넷과 관련 되는 교육 내용 항목이 여러 개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국어과의 교육 내용 중 어떤 내용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도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을 뿐, 새로운 의사소통의 매체와 텍스트로서의 컴퓨터나 인터넷의 가능성과 본질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정보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야 선택할 수 있는 심화과목인 작문 교과서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전자우편이나 게시판 글쓰기, 홈페이지 글쓰기 등을 다루고 있다.<sup>3)</sup> 이에 반해, 학생들은 이보다 훨씬 일찍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의 의사소통 방식에 익숙해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생들조차 이미 커뮤니티를 만들고 게시판과 전자우편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로서 실제로 교육을 받을 학생들과 교육을 담당할 국어과 교사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인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sup>4)</sup>

3)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체제에서 작문 과목은 심화 선택 과목이다. 따라서 작문은 국민 기본 공통 과목인 국어의 쓰기 영역에서 다른 내용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자 작문의 개념은 국어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컴퓨터로 글 쓰기"에 해당되는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 작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글을 쓰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글쓰기 환경이 바뀌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고지를 사용하는 일이 드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 기능은 편집 기능이 탁월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글쓰기 지도에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는 자유롭게 글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작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인터넷에서의 표현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필요, 태도, 인식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을 담당하게 될 국어과 교사가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인터넷에서의 표현 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두 집단 간의 인터넷 사용과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 2) 연구의 목적과 개요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수도권 소재 12개 교 중·고등학생과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이용 실태와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고등학생의 정보 이용 및 구성 실태와 비교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5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중·고등학생과 같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설문 조사를 실시한 12개교의 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실태와 인터넷 교육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sup>5)</sup>

- 4) 이 연구는 일상생활에 침투해 있는 인터넷의 표현 방식을 교육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 과제인 '하이퍼 미디어 시대의 표현 교육 연구 (KRF-2000-005-B20014)'의 일부로서 수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연구 과제는 먼저 인터넷의 다양한 표현 방식의 특성을 밝히고 나서, 교육을 수행할 국어과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와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교육내용과 방법을 설계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 5) 학생과 교사의 인터넷 사용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의 경우, 조사의 내용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실태와 중요도 인식에 대한 설문, 인터넷의 의사소통 방식(홈페이지 구성, 채팅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전자우편 이용, 전자게시판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사이버 문학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학생들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와 인식에 대한 설문, 인터넷 표현 교육에 대한 경험과 앞으로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 설문으로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교사의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을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실태와 중요도 인식, 학생들의 통신 언어

이 설문 조사에 기초하여 교사와 학생 두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조사한 설문의 결과를 분석한 후, 두 집단의 인터넷 이용 실태와 인식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과 교사와 학생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d)와 그것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여, 정보화 시대의 교육과정 설계에 함의를 얻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 ■ 연구의 개요

- 조사 대상 : 수도권 소재 12개 학교 중·고등학생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과 수도권 소재 5개 대학 대학생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 78명
- 조사 기간 : 2003년 5월 12일 - 2003년 5월 22일
- 조사 방법 : 면접원이 설문 대상 학교 방문  
자기 면접을 통한 설문지 기재
- 비교 내용 : ① 학생과 교사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도  
② 학생과 교사의 인터넷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③ 학생과 교사의 통신 언어에 대한 태도  
④ 학생과 교사의 사이버 문학에 대한 태도  
⑤ 학생과 교사의 인터넷 표현 교육에 대한 태도
- 표본  
① 학생

---

사용에 대한 인식과 지도 실태, 인터넷 활용 교육의 경험, 인터넷 표현 교육의 경험과 내용, 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인터넷 관련 내용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설문 문항은 연구참여자들(학술진흥재단 지원 과제 KRF-2002-005-B20014)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나, 결과의 분석과 해석은 각기 맡은 연구 영역에 따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종합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는 전체 조사 연구의 일부분이며, 잘못된 해석은 본 연구자의 책임이다.

〈조사 대상 학생의 학교 및 학년별 분포〉

	Cases					
	Valid		Missing		합계	
	N	Percent	N	Percent	N	Percent
학교 *학년	591	98.7%	8	1.3%	599	100.0%

			학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교	중학교	빈도	107	56	41		204
		%	52.5%	27.5%	20.1%		100.0%
	고등학교	빈도	91	138			229
		%	39.7%	60.3%			100.0%
	대학교	빈도	97	41	8	12	158
		%	61.4%	25.9%	5.1%	7.6%	100.0%
합계		빈도	295	235	49	12	591
		%	49.9%	39.8%	8.3%	2.0%	100.0%

〈조사대상 학생의 성별 분포〉

	Cases					
	Valid		Missing		합계	
	N	Percent	N	Percent	N	Percent
학교 *성별	597	99.7%	2	0.3%	599	100.0%

			성별		합계
			남자	여자	
학교	중학교	빈도	108	98	206
		%	52.4%	47.6%	100.0%
	고등학교	빈도	119	110	229
		%	52.0%	48.0%	100.0%
	대학교	빈도	80	82	162
		%	49.4%	50.6%	100.0%
합계		빈도	307	290	597
		%	51.4%	48.6%	100.0%

② 교사

〈조사 대상 교사의 학교별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중학교	36	45.6	46.2	46.2
	고등학교	42	53.2	53.8	100.0
	합계	78	98.7	100.0	
Missing	System	1	1.3		
합계		79	100.0		

〈조사 대상 교사의 교육 경력별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5년 이하	24	30.4	30.8	30.8
	6-10년	6	7.6	7.7	38.5
	11- 15년	21	26.6	26.9	65.4
	16 - 20년	18	22.8	23.1	88.5
	21년 이상	9	11.4	11.5	100.0
	합계	78	98.7	100.0	
Missing	System	1	1.3		
합계		79	100.0		

〈조사 대상 교사의 성별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Valid	남자	33	41.8	42.3	42.3
	여자	45	57.0	57.7	100.0
	합계	78	98.7	100.0	
Missing	System	1	1.3		
합계		79	100.0		

## 2.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

학생과 교사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물어 보았다. 그 결과를 비교해 보니, 학생과 교사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실태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자료/정보 검색 서비스와 전자우편의 이용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채팅과 메신저 서비스, 게임, 동호회(커뮤니티), 전자게시판,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 사이버 문학, 인터넷 신문/잡지, 학습(강의 수강) 서비스 이용에는 교사와 학생 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메신저, 게임, 동호회(커뮤니티), 게시판,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 사이버 문학 감상 서비스에 대해서 교사의 이용도는 학생의 이용도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교사들에 비해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대화방이나 메신저, 게임의 경우 교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정보 검색 및 전자 우편

교사와 학생은 자료/정보 검색 및 전자 우편 서비스를 비슷한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터넷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식 중 교사와 학생이 유사한 이용도를 보인 것은 전자 우편이었다. 그러나 전자우편의 사용 목적과 구체적 사용 실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후에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표 1〉 자료/정보 검색 및 전자우편 이용도 비교

이용서비스		평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빈도						
자료/정보 검색	학생	빈도	4	26	179	244	141	594
		%	0.7%	4.4%	30.1%	41.1%	23.7%	100%
	교사	빈도	1	3	13	38	23	78
		%	1.3%	3.8%	16.7%	48.75%	29.5%	100%
전자우편	학생	빈도	22	92	187	170	122	593
		%	3.7%	15.5%	31.5%	28.7%	20.6%	100%
	교사	빈도	5	4	27	26	16	78
		%	6.4%	5.1%	34.6%	33.3%	20.5%	100%

### 대화방 이용

교사와 학생 두 집단의 과반수 이상이 대화방을 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사보다는 학생들이 대화방을 좀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에서도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68.425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학생과 대화방 이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생-교사 대화방 이용도 비교

이용서비스		평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빈도						
대화방	학생	빈도	140	188	163	60	45	596
		%	23.5%	31.5%	27.3%	10.1%	7.6%	100%
	교사	빈도	52	17	7	2		78
		%	66.7%	21.8%	9.0%	2.6%		100%

###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68.425	4	.000

### 메신저 이용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이 훨씬 더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화방의 이용과 비교해서 학생과 교사 두 집단 다 대화방보다는 메신저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147.906 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0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학생과 메신저 이용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생-교사 메신저 이용도 비교

이용서비스		평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메신저	학생	빈도	30	47	100	138	278	593
		%	5.1%	7.9%	16.9%	23.3%	46.9%	100%
	교사	빈도	34	15	16	10	3	78
		%	43.6%	19.2%	20.5%	12.8%	3.8%	100%

###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47.906	4	.000

### 게임 이용

학생들에 비해 교사들은 게임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

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168.295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0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학생과 게임 이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표 4〉 학생-교사 게임 이용도 비교

평가 이용서비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게임	학생	빈도	53	101	131	120	189	594
		%	8.9%	17.0%	22.1%	20.2%	31.8%	100%
	교사	빈도	47	20	9	1	1	78
		%	60.3%	25.6%	11.5%	1.3%	1.3%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68.295	4	.000

동호회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38.683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0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학생과 동호회 이용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생-교사 동호회 이용도 비교

평가 이용서비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동호회	학생	빈도	54	103	147	161	127	592
		%	9.1%	17.4%	24.8%	27.2%	21.5%	100%
	교사	빈도	20	23	19	12	4	78
		%	25.6%	29.5%	24.4%	15.4%	5.1%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33.688	4	.000

**전자게시판 이용**

메신저, 게임 등과는 달리 “많이 사용한다”이상의 응답을 한 학생이 과반수가 넘지 않았지만, 교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게시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 (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16.241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3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학생과 게시판 이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생-교사 게시판 이용도 비교

평가 이용서비스		평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게시 판	학생	빈도	66	133	205	114	72	590
		%	11.2%	22.5%	34.7%	19.3%	12.2%	100%
교사	빈도	16	26	25	6	5	78	
	%	20.5%	33.3%	32.1%	7.7%	6.4%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6.241	4	.003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

70.9%의 학생이 영화 및 음악, 동영상을 감상에 대해 ‘많이 사용한

다' 이상의 답을 한 것에 비해 교사는 32.1%가 '많이 사용한다' 이상의 답을 했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62.072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학생과 영화, 음악 및 동영상 감상 이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생-교사 영화, 음악 동영상 감상 이용도 비교

평가 이용서비스		평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영화, 음악, 동영상	학생	빈도	12	43	118	189	232	594	
		%	2.0%	7.2%	19.9%	31.8%	39.1%	100%	
	교사	빈도	8	15	30	19	6	78	
		%	10.3%	19.2%	38.5%	24.4%	7.7%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62.072	4	.000

사이버 문학 감상

학생들에 비해 교사들은 사이버 문학을 덜 감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13.329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10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학생과 사이버 문학 감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생과 국어 교사의 이용도 차이에는 더 큰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문학의 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에 비해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이용 비율이 더 높았으며6),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7〉 학생-교사 사이버 문학 감상 이용도 비교

평가 이용서비스		평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빈도	%						
사이버 문학	학생	빈도	97	167	170	86	73	593	
		%	16.4%	28.2%	28.7%	14.5%	12.3%	100%	
	교사	빈도	17	30	23	7	1	78	
		%	21.8%	38.5%	29.5%	9.0%	1.3%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3.329	4	.010

인터넷 신문/잡지와 학습(강의 수강) 이용

인터넷 신문, 잡지 이용과 인터넷을 학습(강의, 수강)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교사와 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앞의 다른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교사가 학생에 비해 인터넷 신문, 잡지와 학습 관련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에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8〉 교사-학생 인터넷 신문/잡지 이용 비교

6) '많이 사용한다'와 '매우 많이 사용한다'의 응답 비율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31.8%이고, 대학생은 13.6%이었다.

평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이용서비스	인터넷	빈도	117	175	164	95	44	595
		%	19.7%	29.4%	27.6%	16.0%	7.4%	100%
	신문, 잡지	빈도	5	8	20	30	15	78
		%	6.4%	10.8%	25.6%	38.5%	19.2%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45.349	4	.000

〈표 9〉 학생-교사 학습(강의, 수강) 이용도 비교

평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이용서비스	학습	빈도	227	204	115	37	12	595
		%	38.2%	34.3%	19.3%	6.2%	2.0%	100%
	교사	빈도	14	24	20	17	3	78
		%	17.9%	24%	25.6%	21.8%	3.8%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30.068	4	.000

### 3.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

#### 1) 인터넷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학생과 교사에게 인터넷 서비스가 생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인터넷 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태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자료/정보 검색 서비스는 교사 91.1%, 학생 85.7%가 많이 중요하다 이상의 대답을 해서, 두 집단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 우편 서비스도 두 집단 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많이 중요하다 이상의 대답을 한 학생은 56.8%, 교사는 69.6%이었다. 전자 게시판과 학습(강의, 수강)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도 두 집단의 경향은 비슷했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두 집단과 중요도 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화방, 메신저, 게임, 동호회, 사이버 문학,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 인터넷 신문, 잡지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화방

교사들은 학생들에 비해 대화방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학생들은 48%, 교사들은 75.8%가 대화방 서비스가 생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34.621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과 대화방의 중요도 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 학생-교사 대화방 서비스 중요도 비교

이용서비스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많이 중요하다	매우 많이 중요하다	합계
		빈도						
대화방	학생	빈도	111	174	213	53	43	
		%	18.7%	29.3%	35.9%	8.9%	7.2%	%
	교사	빈도	34	25	17	2		78
		%	43.6%	32.1%	21.8%	2.6%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34.621	4	.000

메신저

메신저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중요도 인식은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사는 49.4%가 메신저가 생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비해, 학생은 11.1%가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반대로 교사는 '많이 중요하다' 이상의 응답을 한 비율이 10.1%임에 비해 학생은 56.5%이었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108.914 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과 메신저의 중요도 인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생-교사 메신저 중요도 비교

이용서비스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많이 중요하다	매우 많이 중요하다	합계
		빈도						
메신저	학생	빈도	19	47	193	150	186	590
		%	3.2%	7.9%	32.4%	25.2%	7.6%	100%
	교사	빈도	20	19	31	6	2	78
		%	25.6%	24.4%	39.7%	7.7%	2.6%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08.914	4	.000

**게임**

게임에 대한 두 집단의 태도도 대화방과 메신저에 대한 태도와 비슷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교사는 73.1%가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 학생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73.860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과 게임의 중요도 인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학생-교사 게임 중요도 비교

이용서비스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많이 중요하다	매우 많이 중요하다	합계
		빈도						
게임	학생	빈도	65	114	180	109	127	595
		%	10.9%	19.2%	30.3%	18.3%	21.3%	%
	교사	빈도	31	25	17	3	1	77
		%	40.3%	32.5%	22.1%	3.9%	1.3%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73.860	4	.000

**동호회**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이 동호회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 값은 17.255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2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과 동호회의 중요도 인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학생-교사 동호회 중요도 비교

이용서비스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많이 중요하다	매우 많이 중요하다	합계
		빈도	27	62	194	179	131	593
동호회	학생	%	4.6%	10.5%	32.7%	30.2%	22.1%	100%
		빈도	9	13	29	23	4	78
	교사	%	11.5%	16.7%	37.2%	29.5%	5.1%	100%
		빈도	9	13	29	23	4	78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7.255	4	.002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

학생 집단이 교사 집단에 비해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26.280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과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의 중요도 인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4〉 학생-교사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 중요도 비교

이용서비스 \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많이 중요하다	매우 많이 중요하다	합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영화, 음악, 동영상	학생	빈도	11	31	168	194	191	595
		%	1.8%	5.2%	28.2%	32.6%	32.1%	100%
	교사	빈도	3	7	38	23	7	78
		%	3.8%	9.0%	48.7%	29.5%	9.0%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26.820	4	.000

**사이버 문학 감상**

사이버 문학 감상에 대한 교사의 학생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10.370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35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과 사이버 문학 감상의 중요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 간에는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사이버 문학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표 15〉 학생-교사 사이버 문학 중요도 비교**

이용서비스 \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많이 중요하다	매우 많이 중요하다	합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사이버 문학	학생	빈도	45	113	234	123	77	592
		%	7.6%	19.1%	39.5%	20.8%	13.0%	100%
	교사	빈도	7	22	29	18	2	78
		%	9.0%	28.2%	37.2%	23.1%	2.6%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0.370	4	.035

인터넷 신문, 잡지

학생들에 비해 교사 집단이 인터넷 신문, 잡지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22.487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과 인터넷 신문, 잡지의 중요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6〉 학생-교사 인터넷 신문, 잡지의 중요도 비교

이용서비스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많이 중요하다	매우 많이 중요하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인터넷 신문	학생	빈도	40	82	211	158	102	593	
		%	6.7%	13.8%	35.6%	26.6%	17.2%	100%	
잡지	교사	빈도	2	3	18	36	19	78	
		%	2.6%	3.8%	23.1%	46.2%	24.4%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22.487	4	.000

2) 인터넷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교사와 학생에게 각각 인터넷이 학생들의 학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두 집단 다 공통적으로 인터넷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학생 집단은 50.2%가 교사 집단은 60.2%가 학생의 학습에 인터넷이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표 17〉 인터넷의 학습 기여도에 대한 학생-교사의 인식 비교

조사대상 \ 평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도움이 된다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합계
학생	빈도	12	63	222	254	45	596
	%	2.0%	10.6%	37.2%	42.6%	7.6%	100%
교사	빈도		7	24	43	4	78
	%		9.0%	30.8%	55.1%	5.1%	100%

### 3) 통신 언어에 대한 태도

#### 통신 언어 사용 정도

교사와 학생에게 인터넷에서 통신 언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물어보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교사와 학생은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교사 집단의 74.7%가 통신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나 학생 집단은 20.5%만이 그렇게 대답했다. 이에 반해 학생 집단의 53.3%가 통신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대답했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123.213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과 통신 언어 사용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8〉 학생-교사 통신 언어 사용 정도 비교

조사대상	평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많이 사용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합계
학생	빈도	24	98	155	202	115	593
	%	4.0%	16.5%	26.1%	33.9%	19.4%	100%
교사	빈도	19	40	18	1		78
	%	24.4%	51.3%	23.1%	1.3%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23.213	4	.000

통신 언어 사용 이유

교사와 학생에게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물어 보았다. 학생은 '타자를 빨리 치기 위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교사는 '대화 구성원들과의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란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두 집단 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란 이유를 들었다. 학생보다 대화방이나 메시지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교사는 대화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타자를 빨리 칠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9> 학생-교사 통신언어 사용 이유 비교(중복선택)

통신 언어 사용 이유	학생		교사	
	빈도	%	빈도	%
타자를 빨리 치기 위해서	282	29.0%	16	14.3%
통신상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185	19.0%	18	16.1%
표기법이나 띄어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39	4.0%	3	2.7%
대화 구성원들과의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154	15.8%	36	32.1%
통신언어 구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46	4.7%	2	1.8%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196	20.1%	31	27.2%
기타	72	7.4%	6	5.4%
합계	974	100.0%	112	100.0%

660 valid cases; 18 missing cases

65 valid cases; 14 missing cases

학생들 중 기타에 직접 사용 이유를 기술한 사람이 60명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반응은 '재미있어서', '쓰기 편하니까'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게) 귀찮아서',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습관이 되어서'였다. 또 '친근감 때문에', '그냥 어감이 좋아서', '모름', '그냥' 등의 답변들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감정 표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문어체를 쓰면 다소 대화가 경직될 수 있다. 평상시 대화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라는 사용 이유는 통신 언어의 사용 이유를 통신 공간의 특성과 연관지어 파악한 답으로 보인다.

### 언어 규범 파괴에 대한 태도

학생과 교사에게 통신상의 언어 규범 파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학생들에 비하여 교사들이 통신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해 더 보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교사들의 61.8%가 언어 규범에 맞게 통신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것은 통신 언어의 사용 정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 <표 20> 통신 언어의 규범 파괴에 대한 학생-교사의 태도 비교

의견 조사대상		언어 규범의 파괴가 심각하므로 언어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통신상에서만 한정해서 사용한다. 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어는 어차피 변하기 마련이므로 통신에서는 실생활에서든 사용해도 무방하다	기타	합계
		학생	빈도 214 % 36.1%	빈도 309 % 52.1%	빈도 51 % 8.6%	빈도 19 % 3.2%
교사		빈도 47 % 62.7%	빈도 26 % 34.7	빈도 2 % 2.7%		빈도 75 %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20.606	3	.000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20.606이고 자유도 3일 때,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과 통신 언어에 대한 태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기타 답 중에는 '상황 봐서 쓴다', '듣는 상대에 따라서 알아서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어를 완전히 망쳐 놓는다', '언어가 파괴되는 것은 그 나라를 지탱하는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었다.

사이버 문화에 대한 인식

다음은 인터넷에 연재되다가 올해 3월 출간되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귀여니(본명 이윤세)의 소설에 관한 문화일보 기사의 일부이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미쳐 있는' 소설이 있다. 특히 중학생들은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이야기에 끼지 못한다. 올해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작가 '귀여니'

(본명 이운세·여)의 장편 소설 '그놈은 멋있었다'(이하 '그놈·황매)가 그 책이다.

경기도 고양시 모 중학교(남녀공학)에서 조사해본 결과 2학년 학급 40~41명의 학생 중에 평균 17명이 이 소설을 읽었다고 한다.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그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학교 국어 교사는 "수업 시간에도 '그놈'을 읽고 있어 주의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도서관의 경우 16명 전원이 '그놈'을 봤다"고 말했다. 부산 모 여자 중학교 국어 교사는 "한 학급당 평균 40% 정도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그놈'을 읽었다"고 밝혔다.

'그놈'은 지난 3월 7일 출간 이후 연속 6주째 국내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교보문고 집계)를 달리고 있다. 출판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20만 권 가까이 팔렸으며, '책이 없어' 못 팔 정도라고 한다. '그놈'의 인기를 실증하는 에피소드. 책이 필요해 출판사 측에 연락했더니 마침 출판사 영업부장이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가 있었다. 영업부장 왈, "지금 갖고 있는 책이 없으니 교보에서 '반품'을 받아 갖다 주겠다"는 것. 20분 내로 오겠다던 사람이 1시간 반이나 지나서 책을 갖고 왔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물었더니 "교보에서 '책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무슨 반품이냐며 한 권도 주지 않더라"며 "인근 영풍문고로 가 사정사정해서 책을 구해 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놈' 못지 않게 귀여니의 후속작 '늑대의 유혹'(이하 '늑대·황매)도 그 열풍이 만만찮다. '늑대'의 경우 4월 3주 현재 국내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5위(교보문고 집계)를 달리고 있다. 출판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판매량은 현재 16만 권 정도. '그놈'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귀여니'가 인터넷 '다음 카페'에 연재했으며 '늑대' 역시 인터넷에서 연재했던 소설이다(문화일보, 2003년 4월 28일).

이 기사와 내용처럼 인터넷을 통해 창작되어 유통되고 있는 사이버 문학에 심취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문학은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창작되고 읽혀지고 있는 문학으로 개념을 정했다. '그놈은 멋있었다' 등의 소설과 '엽기적인 그녀', '동갑내기 과외하기' 등과 같은 경험담이나 다양한 유머(유머 게시판)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이버 문학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책으로 출판된 문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이버 문학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왔다.

〈표 21〉 사이버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조사대상		필요성	재미있고 유익하다	진지하지 않고 내용이 가벼운 것 같다	통속적이고 허무맹랑하 다	쉬워 보여서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기타	합계
학 교	중학	빈도	90	36	10	27	25	188
	교	%	47.9%	19.1%	5.3%	14.4%	13.3%	100%
	고등	빈도	61	70	20	40	20	211
	학교	%	28.9%	33.2%	9.5%	19.0%	9.5%	100%
대학	빈도	18	66	12	31	17	144	
	교	%	12.5%	45.8%	8.3%	21.5%	11.8%	100%
합계	빈도	169	172	42	98	62	543	
	%	31.1%	31.7%	7.7%	18.0%	11.4%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57.988	8	.000

학교 급별로 사이버 문학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반응이 47.9%로 나왔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의 비율이 비슷한 편이지만, 대학생의 45.8%는 '진지하지 않고 내용이 가벼운 것 같다'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사이버 문학을 즐기고 있는 주 대상이 중·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다.

사이버 문학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나온 기타 의견에서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크게 '동질감 형성, 재미, 일상 생활과의 관련, 접근에 있어서의 경제성과 편리함, 작가와의 소통 용이성'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었

고,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비속어의 사용과 무익함'이 지적되었다.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이 사이버 문학에 심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73.3%의 교사가 학생들이 사이버 문학을 즐겨 읽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여 주었다. 학생들에게 물은 것과는 다른 질문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사이버 문학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이버 문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사이버 문학에 대한 교사의 의견

평가 조사대상		다양한 문학적 수 경험을 할 때 있기 긍정적으로 공정적으로 각한다	사이버 문학이 라도 읽는 것 이 그나마 행이다	너무 흥미 위 주의 작품에 만 몰두하 고 정통 문 설을 멀리 하는 것 같 아 된다	깊이 있는 사 고려 부족 하다고 생각 한다	있는 신장에 영향을 미친 다	합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교사	빈도	9	11	51	4		75
	%	12.0%	14.7%	68.0%	5.3%		100%

## 4.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 표현 교육에 대한 인식

### 인터넷 표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교사와 학생에게 인터넷 상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필요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30.75%임에 비해 교사는 1.3%만이 필요 없다는 대답을 했다. 반면에 교사는 75%가 '많이 필요하다' 이상의 대답을 해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3〉 인터넷 표현 교육의 필요성 비교

조사대상		필요성					
		전혀 필요 없다	거의 필요 없다	보통이다	많이 필요하다	매우 많이 필요하다	합계
학생	빈도	58	115	280	83	29	565
	%	10.3%	20.4%	49.6%	14.7%	5.1%	100%
교사	빈도		1	18	40	17	76
	%		1.3%	23.7%	52.6%	22.4%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08.851	4	.000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108.851 이고 자유도 4일 때,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과 표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표현 교육의 내용

교사와 학생에게 인터넷 상의 의사소통 방식에 배우거나 가르친다면 우선적으로 무엇을 배우거나 가르쳐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학생과 교사의 생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학생은 채팅이나 메신저에서의 대화, 사이버 문학 쓰기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으나, 교사는 게시판 글쓰기를 49.3%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 다음이 18.7%로 채팅이나 메신저에서의 대화였다. 이렇게 인터넷 상의 의사소통 방식의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이것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24〉 인터넷 표현 교육의 내용 비교

조사대상	교육내용	홈페이지	전자우	게시판	채팅이나	사이버	기타	합계
		글쓰기	편 쓰기	글쓰기	메신저에	문학		
		서의 대화	쓰기					
학생	빈도	107	46	85	127	137	34	536
	%	20.0%	8.6%	15.9%	23.7%	25.6%	6.3%	100%
교사	빈도	9	11	37	14	1	3	75
	%	12.0%	14.7%	49.3%	18.7%	1.3%	100%	1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60.147	5	.000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피어슨(Pearson)의 카이스퀘어값은 60.147 이고 자유도 5일 때,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과 표현 교육의 내용에 대한 인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결과는 학생들의 게시판 이용도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사들의 게시판 이용도나 중요도에 비해서 게시판 글쓰기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전자우편이나 채팅이나 메신저에서의 대화, 사이버 문학보다는 게시판에서의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실생활에서의 글쓰기와 더 밀접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연구의 결과의 논의

인터넷 상의 표현 방식 즉, 메신저,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어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학습자들의 의사 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새로운 매체에 의한 소통 방식 또한 국어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할 국어과 교사와 교육 대상인 학생의 정보화 실태와 능력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의 정보화 수준, 흥미, 요구와 상관없이 학습자들에게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는 없다.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설계하기 전에 학습자의 정보화 수준, 흥미, 요구를 충분히 조사하여 교육 내용의 적합성과 위계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는 교육을 담당하게 될 교사가 실제로 새로운 교육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자, 교사, 교육과정 자체, 환경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변화하더라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지식, 기능, 인식 등이 변화하지 않는 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교사들이 실제로 실천한 교육과정이 더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김정자, 2003c).

상식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거나, 국어교육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조사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지 사용 실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교사와 학생의 사용 실태와 인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또한 그러한 차이가 교육적 국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중·고등·대학생과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 중

공통된 질문의 결과를 비교하여 교사와 학생의 정보 격차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인터넷 이용 실태와 사이버 문학, 통신 언어, 인터넷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두 집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이용 실태의 비교 결과 특히 채팅과 메신저, 게임, 동호회(커뮤니티), 게시판,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 사이버 문학은 학생의 이용도가 높았고, 인터넷 신문 잡지, 학습(강의 수강) 서비스는 교사의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료/정보 검색 서비스와 전자 우편의 이용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별 차이가 없었다. 교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인터넷을 정보적 목적보다는 오락적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자료/정보 검색과 전자 우편은 두 집단 두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대화방, 메신저, 게임, 동호회, 사이버 문학,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 인터넷 신문, 잡지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교사들보다 대화방, 메신저, 게임, 동호회, 사이버 문학,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통신 언어와 사이버 문학 감상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 비해 부정적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 표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학생들보다 덜 사용하는 교사들이 필요성은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교육 내용의 선택에 있어서도 교사와 학생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야 할 문제는 우선 교사와 학생의 정보격차 즉, 정보의 활용 및 정보 활용 능력의 차이의 문제이다.

정보화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관점<sup>7)</sup> 중 대표적인 하나는 정보 흐름과 정보 전달 기반의 불균형 즉 정보 격차에 주목하는 입장이

다. 정보의 불균형에는 국가간의 불균형에서부터 한 나라 안에서 계층간 또는 인종간 불균형, 성별간 불균형, 세대간 불균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세대간의 정보 격차이다. 디지털 기술의 수용과 습득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격차는 단순히 청소년계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기존 세대보다 월등히 앞서서 현상인 '세대뒤편'(generation lap) 현상'을 발생하고 있으며<sup>8)</sup>, 이러한 정보 격차는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새로운 문화의 창출과 영향력 관계의 변화를 예견하게 한다(황상민, 2000:39).

세대간의 정보 격차 문제 중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정보 격차는 매체 교육의 내용과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문제 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설문 조사 이후 전체 연구의 일환으로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게시판 글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후 4명의 학생들과 수업 내용과 방법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인터넷 이용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며, 특히 이 중 한 학생은 학급 카페를 개설하고, 인터넷 활용 기술이 높은 학생이었다.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학생은 너무 쉬운 내용이었고, 다 알

7) 이재경(2001)에서는 정보화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의 관점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주로 정보 흐름과 정보 전달 기반의 불균형에 주목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지나친 상업화의 폐해에 대한 우려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생활과 작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다양한 정보통신기들이 사회 구성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변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다.

8) 조선일보 2000년 1월 1일자 「21세기 인터뷰」에서 MIT 미디어랩 소장인 네그로 폰테도 '인터넷이 정보와 부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부익부 빈익빈보다는 세대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인터넷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이 대부분이다. 디지털화 현상이 정보와 부가 젊은층에 편중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소익부 노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 현상은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충격을 줄 것이다.」

고 있는 내용이라 이러한 수업은 필요없다는 반응이었다. 이것은 청소년이 기존 세대보다 월등히 앞서서 현상인 '세대뒤틀기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새로운 매체와 관련된 수업 현장에서 '정보의 역전'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생이 교사보다 새로운 매체를 더 많이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매체 관련 수업에서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교사의 지식 전달(transmission)이라는 측면의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사가 지니고 있는 지식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교사와 학생의 상호협력적 수업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떠한지,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락(2002: 40-50)은 거의 누구나 웹사이트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이 신기술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한다. 즉 인터넷을 읽고 쓰는 수행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소통 방식과 가치 체계와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방향에 관하여 의견을 표하고,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사용자 이상의 존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교사의 역할이며, 단순한 정보 활용 능력보다는 더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것이다.<sup>9)</sup>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의미와 그 문화에 대한 교육은 바로 국어 교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몫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의 소통 방식을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설정할 때, 전자 우편을 쓰거나 전자게시판에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의 수행만을 교육 내용으로 안 된다. 인

9) 지금까지 교사는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지만 이보다 더 고차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 또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학습 안내자로서, 학습자의 학습을 독려하는 학습 촉진자로서, 협력자로서 등의 역할을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강숙희, 2001: 32-34).

터넷 상에서 다양한 소통 방식을 경험하도록 하는 수행적, 경험적 교육을 넘어서 그러한 행위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까지 깨닫게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의 정보 격차는 인터넷의 의사소통 방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교육 내용을 마련했어도 교사에 의해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교육 내용이 제대로 교육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관심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 내용을 받아들이고 시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교사에게는 재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의 소통 방식에는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요소가 관여한다.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 읽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사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본적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sup>10)</sup>

두 번째 논의해야 할 점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통신 언어라든지 사이버 문학 등을 교육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통신 언어 현상이나 사이버 문학 등에 대한 입장에서 교사와 학생은 확연히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배우고 싶은 내용에서도 게시판 글쓰기를 선택한 교사는 49.3%인데 비해 학

10) 교사들에게 인터넷에서의 표현 방식을 가르치고자 할 때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는데, 특기할 것은 '인터넷의 기술적 활용 능력'을 필요 요소로 뽑은 14명의 교사들 중에서 9명의 교사들이 40대에서 50대 사이의 교사라는 점이다.

인터넷 이용 및 기술에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단절감을 느끼는지 교사들에게 물어 보았는데, 교사의 나이와 단절감을 느끼는 정도에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었다. 인터넷 이용 및 기술에서 학생들과 단절감을 "매우 많이 느낀다"고 대답한 2명의 교사는 나이가 42, 50세였다. "많이 느낀다"는 대답을 한 11명의 교사 중에서 8명의 교사 또한 40대가 7명 50대가 1명이었다(김정자, 2003c).

국어과 교사들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식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김정자(2003c)를 참고할 것.

생은 15.9%였다. 이에 반해 학생의 25.6%가 사이버 문학쓰기를 배우고 싶다고 했으나, 교사는 1.3%만이 가르치고 싶다는 응답을 했다. 교육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무조건 학생의 흥미나 요구만을 따를 수는 없다. 학생이 흥미나 요구를 느끼지 못해도 학생의 성장을 위해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인터넷과 관련한 교육 내용을 마련할 때, 우리는 교사의 학생의 정보 격차, 혹은 인터넷 사용에서의 정보의 역전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교사는 자신의 정보화 수준과 흥미에 맞추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설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내용을 설정할 때 학년별 또는 학교급별 교육 내용의 적합성과 위계를 결정해야 한다.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조차 전자우편을 능숙하게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계에서는 전자우편 쓰기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표현 교육의 내용을 마련할 때에는 학생들의 정보 활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세 번째, 논의해야 할 점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의 실태에서의 차이점이다. 이것을 살펴보면 교사의 학생의 인터넷 이용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학생들이 채팅이나 메신저, 동호회 활동, 게임,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 사이버 문학 등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친교적 목적이나 오락적 목적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교사들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인터넷 신문/잡지, 학습(강의 수강)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정보적, 학습적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교육은 이미 생성된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 외에 자신의 필요에 맞게 지식과 정보를 수집, 가공, 활용 더 나아가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강숙희, 2001: 18). 정보 활용 능력의 향상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점

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이세용(2002)의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정보불평등」 연구에서 게임이나 영화·음악감상과 같이 단순히 여가시간 소비를 위한 인터넷 활용의 확산은 정보 불평등 격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소통, 기술 개발 및 학습 목적을 위한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소통 능력은 정보 창출 및 활용 능력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며, 이에 대한 교육은 국어교육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 ■ 참고문헌

- 강숙희(2001), 『인터넷과 수업』, 교육과학사.
- 김두정(2002), 『한국학교 교육과정의 탐구』, 학지사.
- 김성벽(2001), “환경으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연구 - 미디어 생태학의 연구경향과의의”, 언론연구소 정기세미나 Vol.10, No. 1, 중앙대학교 언론연구소
- 김정자(2002), “전자 우편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2003a), “전자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2003b),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작문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 전자 작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6집, 국어교육학회.
- (2003c), “情報化 時代의 글쓰기 教育을 위한 國語 教師의 인터넷 利用 實態 및 認識 調査”, 『어문연구』 119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본 논문은 2004. 2. 28. 투고되었으며, 2004. 3. 14. 심사가 시작되어, 2004. 3. 26. 심사가 종료되었음.

- 김양은(2001), “인터넷 문화 교육을 위해서 인터넷 활용하기 - 미디어 교육으로서의 인터넷 교육”,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인터넷문화학교 2차 워크샵 자료집.
- 목영해(2001), 『디지털 문화와 교육』, 문음사.
- 서유경(2002), 『인터넷 매체와 국어교육』, 역락.
- 이세용(2002),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정보불평등”, 『정보화정책』 제9권 제4호, 한국전산원.
- 이재경(2001), “정보화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김도훈 외,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평론.
- 황상민(2000), “온라인 문화를 바라보는 청소년 및 부모의 시각차”, 청소년의 올바른 정보 이용을 바라는 세미나 - 청소년 온라인 문화 바로 이해하기 자료집.
- 황진구(2000), “온라인 상의 청소년 문화 현주소”, 청소년의 올바른 정보 이용을 바라는 세미나 - 청소년 온라인 문화 바로 이해하기 자료집.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2), 『인터넷 연감 2002』, 전자신문사.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3),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 조사』,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Gilster, P.(1997), Digital Literacy, 김정래 역(1999), 『디지털 리터러시』, 해냄.
- Gurak, Laura J.(2001), Cyberliteracy : Navigation the Internet with Awareness, 강수아 역(2002), 『거미줄에 걸린 웹』, 코기토.
- Moran, C.(2001), Technology and the Teaching of Writing, In G. Tate, A. Rupiper and K. Schick eds., A Guide to Composition Pedag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초록>

## 국어과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식 비교

김정자

이 연구는 인터넷 상의 표현 방식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자료 조사 연구이다. 이 연구는 중·고등·대학생과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의 결과 중 공통된 설문의 결과를 비교하여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이용 실태와 사이버 문학, 통신 언어, 인터넷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두 집단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인터넷 이용 실태의 비교 결과 특히 채팅과 메신저, 게임, 동호회(커뮤니티), 게시판,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 사이버 문학은 학생의 이용도가 높았고, 인터넷 신문 잡지, 학습(강의 수강) 서비스는 교사의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생들은 교사들보다 대화방, 메신저, 게임, 동호회, 사이버 문학, 영화 및 음악, 동영상 감상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통신 언어와 사이버 문학 감상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 비해 부정적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 표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학생들보다 덜 사용하는 교사들이 필요성은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교육 내용의 선택에 있어서도 교사와 학생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야 할 문제는 우선 교사와 학생의 정보 격차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매체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교육 내용, 교사 재교육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매체 관련 강의에서는 학생이 교사보다 새로운 매체를 더 많이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매체 관련 수업에서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교사의 지식 전달(transmission)이라는 측면의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사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 매체 교육의 내용을 설정할 때에는 인터넷을 읽고 쓰는 수행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소통 방식과 가치 체계와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정보 격차는 인터넷의 의사소통 방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 제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교육 내용을 받아들이고 시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교사에게는 재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

두 번째 교사와 학생의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인터넷 표현 교육의 내용을 마련할 때에는 학생들의 정보 활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교사는 자신의 정보화 수준과 흥미에 맞추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교육 내용을 설정할 때 학년별 또는 학교급별 교육 내용의 적합성과 위계를 결정해야 한다.

세 번째, 교사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의 실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친교적 목적이나 오락적 목적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통, 기술 개발 및 학습 목적을 위한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어】** 국어교육, 인터넷, 매체, 의사소통 방식, 인터넷 이용 실태, 정보 격차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ternet Use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 the Contex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Jeong-Ja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researches on teachers and students so as to practice digital communication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e carried out research on Internet use among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urvey are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students in six middle schools and six high schools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students in five universities.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Internet use of two groups. Korean language teachers use Internet news/magazines and e-learning more frequently than students. On the contrary, students use the same Internet service as instant messenger, game, community, web BBS, movie/music/moving image, and cyber literature more frequently than teachers.

Internet services that two groups consider importantly are different. Korean language teachers had more negative opinions about use of the 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language and cyber literature than students. Although teachers use Internet less than students, they consider more than students that Internet education is needed. Two groups are different in selection of contents to learn or teach.

Therefor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digital divided between two

groups. Teachers need to have Internet literacy to teach modes of communication in Internet. When we select contents for Internet education, we need to consider Internet use of student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rnet, media, digital communication, Internet use, digital divided